

'05년 8월1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투자진흥과 과장 우태희, 서기관 여한구 (2110-5362)

외투기업 CEO들, 정부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서
- 5대업종 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T/F 본격 가동 -

□ 외국인투자기업인 「크리스탈지노믹스」의 조중명 사장은 산자부 주최 바이오산업 외국인투자유치 태스크포스(T/F, 7.20일 개최)에 참석, “세계적 바이오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오기 위해 정부의 외자 유치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”고 강한 의지를 보였음

※ 동기업은 2000년 7월에 설립된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세계최고의 권위지인 “Nature”지에 표지선정 및 논문게재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바 있음

○ 바이오 T/F의 경우, 최근 “황우석 교수 효과”로 세계의 관심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발전상에 집중됨에 따라, 이러한 호기를 세계적 바이오기업의 R&D센터 유치 등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키로 하였음

○ 이 회의에 참석한 바이로메드, (주)신원사이언스 등은 세계적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, 글로벌시장 네트워크 형성,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,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

□ 이와 같은 외투기업 CEO를 비롯한 증권사 애널리스트, 산업 전문가, Invest KOREA 전문위원 등의 참여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7.19일 관계기관 외국인투자대책회의를 통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한 5대 우선유치업종(자동차부품, 반도체LCD, 바이오, 문화관광, 유통물류)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임

- 다른 T/F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선진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보였음
- 반도체LCD T/F(7.29일 개최)의 경우, S-LCD, 아사히글라스 등 대규모 투자가 완료되어, 하반기에는 기술력이 있는 부품소재 업체 유치에 역점을 두기로 함
- 자동차부품 T/F(8.2일 개최)의 경우, 최근 현대, 기아 등 국산차의 수출호조로 부품수요가 증대함에 따라, 하반기에 미주 자동차 부품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
- 유통물류 T/F(7.28일 개최)의 경우,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다국적기업의 물류센터 유치에 중점을 두고, 유통분야는 중소규모의 기술력있는 업체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추진키로 함
- 문화관광 T/F(7.28일 개최)의 경우, 주5일제 근무의 본격 도입, 아시아지역 韓流영향으로 레저, 관광, 영화, 애니메이션 등 투자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,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키로 함
- 5대 업종별T/F 운영을 통하여, 하반기에는 타겟기업 선정, 해외 통합IR 개최, 주요 투자가의 訪韓 초청(Red Carpet Service)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
- 이에 대해 우태희 투자진흥과장은 “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전문가와 함께 정부가 투자유치에 나서 수요자지향적인 유치 활동을 펴므로써, 외국인투자가의 신뢰가 더욱 커지는 장점이 있다”며,
- “하반기에는 5대 업종의 민관합동 T/F를 본격 가동, 8월말까지 100대 신규유망투자 기업을 발굴하고, 프로젝트 매니저(PM: Project Manager)를 지정해서 적극 관리해,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업의 투자유치에 힘쓰겠다”고 밝혔음